

IPM 86 of 2003 ISI (Asia Statistical Forum) 개최 결과 보고

1. 일시: 2003. 8.16.토. 9:00-13:30
2. 장소: 독일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의 세계통계대회장 (6 번 회의장)
3. 주제: Meeting Changing Policy Needs in the Asian Region - NSO perspectives
(아시아지역의 변화하는 정책수요 대응-통계청 관점)
4. 참가자: 약 60 명

사회자: 오종남 통계청장

발표자

- 김두섭교수 (한양대 사회학과)
- Mr. Senichi Obayashi, Director-General of Statistical Standards Department, Statistics Bureau, MPHPT, Japan
- Dr. Romulo A. Virola, Secretary General,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The Philippines
- Dr. Carmelita N. Ericta, Administrator of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Philippines
- Ms. Jirawan Boonperm, Director of the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Bureau,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iland

토론자

- Dr. Bhassorn Limanonda, Professor of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 정택환, 통계기획국장
- Dr. Celia M. Rey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s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The Philippines

주요 청중

- Mr. Dennis Trewin, ISI 회장 및 호주통계청장
- Mr. Takanobu Negi, 일본통계국장
- Mr. Frederick W.H. Ho, 홍콩통계청장
- Mr. Manh Hung Le, 베트남 통계청장

- Mr. Lee Eu Fah Edmond, 싱가포르 통계청 차장
- Mrs. Carol S. Carson, IMF 통계국장
- Dr. Kanlaya Krongkaew, 태국 Chulalongkorn 상경대 교수
- 민태형, 대한통계협회장
- 이정진, ISI IASC(계산통계연구회) 회원 및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 이태림, ISI IASE(통계교육연구회) 회원 및 방송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등

5. 회의일정

- 7:45-8:45 조찬회동(Pullman 레스토랑)
- 9:00-9:10 개회, 오종남 통계청장
- 9:10-9:30 “Population Ageing in Korea: Trends, Issues and Policies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 이슈 및 정책)”, Dr. Doo-Sub Kim
- 9:30-9:50 “New Directions in Development of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s in Japan (일본 정부통계 서비스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Mr. Senichi Obayashi
- 9:50-10:10 토론자 토론
Dr. Bhasorn Limanonda on Dr. Kim’s paper
Mr. Taik-Hwan Jyoung on Mr. Obayashi’s paper
- 10:10-10:30 “Meeting Demands for Micro-level Poverty Statistics in the Philippine (필리핀의 미시적 빈곤통계 수요에 대한 대응)”, Dr. Romulo Virola
- 10:30-10:50 “Measuring Poverty in the Philippines: A Search for Alternative Methodologies (필리핀의 빈곤측정: 대체방법론 검토)”, Dr. Carmelita N. Ericta
- 10:50-11:10 “Poverty Analysis in Thailand: Data Producer Perspectives (태국의 빈곤분석: 데이터 생산자의 관점)”, Ms. Jirawan Boonperm
- 11:10-11:30 토론자 토론, Dr. Celia M. Reyes on Poverty Papers
- 11:30-11:55 청중토론
- 11:55-12:00 폐회, 오종남 통계청장
- 12:00-13:30 오찬회동 (Pullman 레스토랑)

6. 주요 발표 내용

Dr. Doo-Sub Kim, “Population Ageing in Korea: Trends, Issues and Policies”

- 평균연령, 노령인구부양비, 노령화지수 등의 자료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소개

- 고령화에 대처하여 일반인구와 고령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 제안
- 고(노)령인구를 70 세부터 구분하는 방안 제안
- 조사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필요성 강조

Mr. Senichi Obayashi, “New Directions in Development of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s in Japan”

- 정보사회의 급진전, 개인정보보호, 지방분권화 등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부통계 서비스 방향 수립
- 주요 통계생산 방향은 전체산업의 경제활동 파악을 위한 경제센서스, 환경통계 및 성인지적 통계 개발임
- 통계조사 결과이용 확대를 위한 주문형 통계생산과 익명 상세데이터 활용 검토 등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항목 소개

Dr. Romulo A. Virola, “Meeting Demands for Micro-level Poverty Statistics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 국가통계조정위원회에서 공식 빈곤통계를 생산하고, 식량, 범위, 소득, 빈곤격차 등과 가구소득지출조사를 통해 빈곤선 비교
-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빈곤범위 변화 및 대체방법론 검토 중
- 세분화된 지역통계 및 농어촌 등 특정지역 통계생산 요구 및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운 방법론 검토 및 통계활동의 우선순위 검토

Dr. Carmelita N. Ericta, “Measuring Poverty in the Philippines: A Search for Alternative Methodologies”

- 필리핀의 빈곤측정 공식방법론 개선 및 대체방법론을 위해 연구 중
- 식량조사, 가구소득지출조사를 활용, 식량 빈곤선 분석
- 하위 30%소득그룹의 식품구성을 전체그룹과 대비, 식품과 빈곤간 관계평가
- 칼로리소비를 기준으로 빈곤선 직접 추정
- 가구소득지출조사를 통해 도시빈곤문제 심각성 확인
- 도시지역 빈곤통계 추정기법 적용
- 소득외 빈곤과 복지 지표 활용을 통한 빈곤측정

Ms. Jirawan Boonperm, “Poverty Analysis in Thailand: Data Producer Perspectives”

- 빈곤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곤자료 수요가 지역단위로 확대
- 빈곤분석 주요 자료원과 그 한계를 소개하면서, 장기데이터 필요성, 가구조사데이터간 연계 불가능, 소지역 조사데이터 부족, 농촌지역의 데이터,

- 자료의 품질, 소득 및 소비 등 불충분한 정보 문제 등을 지적
- 향후 계획으로 시계열자료 강화, 데이터 연계 등 가구조사 개선, 데이터 수요관련 의견수렴, 조정기능강화, 데이터 수집 및 배포시 ICT 적용 등 소개

7. 주요 토론 내용

토론자의 토론

Dr. Bhassorn Limanonda on Dr. Kim's Paper (대독: 박경애)

- 출산장려(pronatalist)정책은 싱가포르 사례를 고려해 볼 경우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되어 있는 한국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
- 여성의 지위 개선으로 남아선호에 따른 인공유산을 방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더 많은 노력 필요
- 노인의 고용확대 및 정년연장 등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 필요
- 고령자를 위한 연금수혜 확대에 수반된 연금관리 문제를 제기
- 의료비 관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
-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역할확대는 바람직하나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 고령자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자료수집 및 연구 필요

Mr. Taik-Hwan Jyoung on Mr. Obayashi's Paper

- 일본통계청의 새로운 방향은 아시아지역 통계청이 직면한 열악한 조사환경, 개인의 비밀보호, 통계청의 낮은 위상, 행정의 지방 자치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장기계획수립 및 현안 문제 해결에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될 것임
- 장기계획에 대한 세부계획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통계의 우선순위 설정 불가피
- 행정자료의 사용은 중요하나 세무자료처럼 정부 부처 간 자료공유, 응답자의 부담 및 협조문제 등이 있음
- 아시아지역의 공통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의 통계 공식 협의체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

Dr. Celia M. Reyes on Three Poverty Papers

- 빈곤의 유형 파악이 필요하며, 정부의 분권화에 따라 관할지역의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치단체의 지역단위 정보 수요 증가
- 소지역 추정시 행정정보 활용에는 통계청의 전문기법 필요

- 필리핀 정부는 상이한 기준으로 빈곤문제 해결에 접근해 왔으며 현 정부는 마을단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빈곤지역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하며, 가구단위로 빈곤층을 선정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
- 근거에 따른 정책 수립이 확산됨에 따라 통계시스템은 수요지향적이 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방법을 극복해야 함.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각국에서도 지역감시단체 등을 통해 통계청 외곽에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빈곤경감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음. 현행 소득, 지출 통계조사 등은 다양한 빈곤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감시시스템을 통한 핵심지표 관리가 필요
- 통계청에서 지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조정 역할을 기술지원, 훈련제공과 아울러 담당
- 통계청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통계조사 외 전반적인 빈곤관련 데이터 수집활동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정부단위의 빈곤측정, 감시, 분석에 기여해야 함

청중 코멘트

- 성(Gender)에 따라 빈곤통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필리핀은 성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
- 빈곤통계의 정책 적합성 여부: 영양수준이 빈곤측정지표로 부적합하며, 빈곤과 경제성장의 관계성이 없음을 지적
- 고(노)령자 연령 상향 필요에 대한 발표 내용에 대해 고령자(the aged) 정의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
- 고령자에게 더 많은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노동기회 축소를 의미
- 고령자에 대해서는 활동 등을 비롯 행정자료, 센서스 자료 등을 통합한 자료 통합 DB 필요
- 경제센서스 실시를 위한 세무자료 활용 방안
- 빈곤통계를 위해서는 ‘세계출산력조사’와 같은 농촌생활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더 많은 정보 수집 필요
- 아시아지역의 빈곤경감을 위해서는 통계능력배양이 필수적
- 소지역 빈곤통계 자료생산과 관련 통계청의 역할은 소지역 자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기술지원임

8. 제출 논문 및 토론문 (별첨)

- Dr. Doo-Sup Kim's Short and Long Version
- Dr. Bhassorn Limanonda's Discussion Paper on Dr. Kim's paper
- Mr. Senichi Obayashi's Short and Long Version, and Presentation File
- Mr. Taik-Hwan Jyoung's Discussion Paper on Mr. Obayashi's paper
- Dr. Romulo A. Virola's Paper and Presentation File
- Dr. Carmelita N. Ericta's Paper
- Ms. Jirawan Boonperm's Short and Long Version
- Dr. Celia M. Reyes's Discussion Paper on Three Poverty Papers